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 탈북난민 돕기 시민 걷기대회

- 19일 (토) 오후 2시 한티공원에 집결 -

우리교회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할 처소를 주심을 감사하기 위하여, 북한을 탈출하였으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주변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난민을 돕고 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계획한 '탈북자를 위한 시민 걷기 대회'가 드디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5월19일(토) 오후 2시 간단한 개회 예배 및 체조를 시작으로 한티공원을 출발하여 양재천 산책로를 돌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코스로 2가지 코스로 진행하게

된다. 연세가 있거나 약한 분들을 위해 짧게 계획된 소망 코스와 학생, 청장년을 위한 믿음 코스로 나뉘어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코스를 택해 탈북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록이 우거진 5월의 산책로를 함께 걷도록 계획되었으며 우리만 참여하는 우리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 주위의 이웃 주민들도 초청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날 행사는 강남구 (구청장 : 권문용)와 서초구 (구청장 : 조남호)의 후원으로 이루어 진다.

## 오늘 7대 장로 후보 선정한다.

-제직들은 후보 10명의 명단과 필기도구 준비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명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동안 온 교회가 기도해온 7대 장로 후보자 공천을 위한 임시 제직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개최된다.

당회가 결의한 후보자는 ①안수집사 ②협동장로 ③제2권사회 회원으로 하고 제직회는 이들 중 배수공천(20명)을 하되 득표순으로 정한다.

제직회에 제출할 후보자 명단은 임직 연도별로 하되 연령순을 따라 이름과 나이만 기록하여 제출케 된다. 제직회원은 후보자중 10명의 이름을 기록하여 투표하되 투표는 1회만 실시한다. 후보로 선출된 자는 당회의 인준을 거쳐 5월20일(주일) 순

례자에 이름, 나이, 신력, 학력, 가족사항, 직업, 봉사부서, 교회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당회 인준 기준은 ① 주일성수, ② 십일조 생활 및 헌신도 ③ 봉사생활 및 모범도를 살펴 당회가 인준한 이들을 공동의회에 제출케 된다.

5월27일(주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20명 후보 중 10명만 기표하여 투표자 중 2/3이상 찬성을 얻은 자 중 득표순으로 10명을 피택자로 정한다. 공동의회 투표도 1회만 실시한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일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오늘의 임시 제직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제직들은 하나님께 기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은퇴자는 결의권이 없다.

### 농구대 설치

- 3:3 길거리 농구로 건전한 청소년 교제케 -

날로 삭막해져 가는 청소년문화를 격정하고 건전한 청소년 교제의 장소가 없어 길을 잃고 헤메이는 양과 같은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전한 청소년 교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우리교회는 본 교회 지하 1층의 여유공간에 3:3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였다. 우리교회의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고 함께 운동을 하며 친구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사용을 원하는 청소년은 사무국에 신청을 하고 농구공을 받아서 사용하고 사용 후 장소를 정리하고 공을 사무국으로 반납하면 된다.

### 강남노회 아동부 연합회 주최 5월 어린이 대회

우리교회 초등부는 학생들을 2001년 5월19일 오후3시에 수서교회에서 열리는 5월 어린이 대회에 성경 외워 쓰기, 그리기, 글짓기 등 3가지 종목에 출전시킨다.

### 찬양제 2주일 앞으로

조국이 경제난을 당해 가장 어려울 때 새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연합 찬양대는 매주 금요일 저녁 2시간 동안 501호에서 맹연습중이다. 성도들은 이 뜻깊은 행사에 전도하기를 위해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 금주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개역개정판 마가복음 10장15절)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Mk 10:15)

### 이번주 요모조모

- ① 한국로잔 위원회 모임 - 제6차 신학심포지움



②새 가족부 야외예배 - 양적, 질적 성장이 보이는 군요.



③ 중등부 헌신예배 - 젊은 날에 주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 이사야서 강해

### 이사야 ( 45:1 - 8 )



이중윤 목사

16세기에 영국의 존 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이신론을 프랑스의 볼테르가 받아들이고 독일의 라이막스가 계속 그 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역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 1.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일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1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고레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별은 고레스의 경건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호와와 목적을 위하여 그가 세움을 받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오장육부가 서로 연결되어 육신을 움직이듯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각의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으셨습니다(1절).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1절), 허리를 풀다는 것은 힘을 못쓰게 만든다는 것이고 고레스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문이 닫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술 마시고 흥청대는 와중에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도 않은 채 '성문이 열린 상태'에서 바벨론을 함락시켰습니다.

### (1)이 일로 고레스는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3절).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스 1:2). 이방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의 항복을 받아내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를 지명하여 바사 왕이 되게 하고 열국을 정복케 하신 이가 다름 아닌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그를 지명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 (2)선민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선민을 이와 같이 값없이 구원하시는데 이것을 고레스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사 45:11 - 13).

### (3)그래서 그들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7절). 이 말씀은 여호와가 홀로 빛도 짓고 평안을 지으심에 대한 찬미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은 그 비를 받고 새싹이 움터나며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온 땅에 충만한 것에 대한 찬미입니다.

### 2.인간의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손으로 일하신다

피를 동인다는 것은 힘을 쓰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5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1절).바벨론 포로로 갇힌 놋문을 열으신 감춰진 손,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다.

흑암 중의 보화(왕들의 보화는 은밀한 지하실이나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곳에 있다)와 은밀한 곳의 재화를 고레스가 얻었습니다(3절). 고레스는 큰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주신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전략을 짜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고레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고레스가 강하게 된 것은 여호와와 임재와 사역 때문입니다.

### 3.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5절). 이 진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상은 폐하여집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고레스의 적들의 허리를 풀고 고레스의 허리는 동이십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적들은 약해져 항복하게 되고, 고레스는 강해져 그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6절).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며 그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도 지으십니다. 모든 일은 그가 홀로 주재하십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사람의 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모르고 우상이 주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5절). 이 말은 하나님의 높으신 주권과 무소 부재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7절).여호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과 환난을 홀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오듯이 구원이 땅에서 솟아나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 어버이 주일 -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 어머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주옥환 권사 (4교구)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이뤄주심을 감사드리며 문선교사 너를 생각해 본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니 늘 깨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교할 줄을 믿는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져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길 기도 드린다.

언젠가 보낸 편지에 "어머니! 아프리카 도마뱀이 안방까지 들어 왔어요. 문단속을 다 하고 나갔다 들어오니 베란다에 피묻은 고깃덩어리가 놓여 있어요. 일종의 아프리카의 부적 같은 것인데 웬지 좀 부서운 생각이 드네요. 많은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었지.

사랑하는 문선교사! 세계적인 하나님의 큰일 김치세미나를 앞두고 급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나까 간악한 마귀들이 문선교사를 악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것이니 두려워 말아라. 우리 서울교회의 온 성도들이 열심으로 김치세미나와 문선교사를 위해 많은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칠장권제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여 물리쳐라. 아버지께서 앞장서 싸워 주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문선교사! 이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만날 때까지 주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늘 평안하기를 염하는 항상 기도 드린다.

### 딸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다시 한번 불러 보고 싶은 어머니

이은옥 권사 (3교구)

어김없이 푸르른 오월이 오고 어버이날이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없고 따뜻한 밥 한끼 지어 드릴 수 없음이 이렇게 가슴아플 줄 몰랐습니다.

육신의 고통 훤히 벗으시고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천국에 가 계시니, 어머니 이제는 평안하시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세브란스병원에 시신을 기증하셨기에 당신 몸에 수의 한 벌 입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급한 손길들에 의해 옮겨져 가는 당신 몸에 새 잠옷 한 벌 덮어 드리고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평안히 잠드신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저희 가슴에 위로가 되어 남아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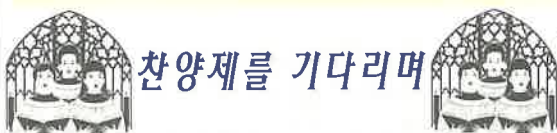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신 채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께 적는 마지막이 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그 동안 참 많이도 섭섭하게 해드렸죠 이제 다 용서하시고 평안히 가세요. 그 때 당신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일년여 병상에 누워 계실 때 그 아픔 나누지 못하고 그 고통 헤아리지 못한 죄책감이 지금에서야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어머니, 당신이 살아오신 삶은 결코 평안한 세월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오직 어머니 당신은 주님만이 꿈이셨고 기쁨이셨습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언제나 성경말씀이 달려 있었고 찬송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모습 사무치게 그리움으로 다가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즐겨 읽으시던 성경 말씀보며 좋아 하셨던 찬송 부르다가 목이 베입니다.

유난히 바람이 많은 봄입니다. 꽃피는 봄을 좋아하셨는데 꽃이 피기도 전에 가신 어머니, 이 신록의 계절에 당신이 내 곁에 안계셔서 가슴이 저려 옵니다.



### 찬양제를 기다리며

세기의 가수 Big three가 6월 온다고 해서 자정 문화인들이 벌써부터 흥분하고 있다. 거기다가 VIP석이 25만 원이나 된다는데 표는 일찌감치 배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로 우리가 흥분하고 기다려야 할 무대는 오는 26일에 있을 서울교회 입당 감사 찬양제이다. 서울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는 이들이라면 이번 감사찬양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이번에 연주될 칸타타 속에는 서울교회 온 성도의 눈물과 감사와 감격으로 온통 뒤범벅이다.

칸타타의 유래는 이렇다. 바호 시대에 에드 마이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셨다. 이 분은 매 주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시로 읊조렸고 후에 이 시들을 모아 '칸타타'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그리고 바호가 이 시들에 곡을 붙여 또한 '칸타타'라고 하였는데 에드 마이스터 목사는 칸타타를 가리켜 '음악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입당하는 그 날을 생각하며 2년여에 걸쳐서 한 줄, 한 줄 성사를 쓰신 이종용 목사님과 그 시에 곡을 붙이며 수없이 많은 오선지를 썼어야만 했던 박정선 집사님은 에드

마이스터 목사님과 바호를 연상케 한다.

이번 칸타타에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에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배어있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구마와 밤을 구워먹으며 밤새 예배당을 지키던 이들의 정성이 들어있다.

이번 찬양제를 통하여 우리는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히 13:15). 구약에 헌물로 드렸던 모든 희생제물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사는 헌물이 아닌 찬송의 제사라는 것이다. 이번 감사 찬양 제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것이다.

허 숙(편집부)

### <김치세미나에 도움주신 가정>

- 실업인 선교회: 이영기 장로, 노송성 장로, 오형철 집사, 송인권 집사, 조동완 집사, 이관규 집사, 신용식 집사
- 김복녀 권사 고기성 박문옥, 무명, 신순우 집사

### 새로 왔어요. 작은 달란트로 동참하고자

정진섭 성도 김은희 집사(1교구)

혜연(14 딸) 혜림(12 딸) 재황(3 아들)

\*김집사님은 딸리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요?

-우리 나라에 있을 때는 시택과 친정이 모두 불교 집안이라 견뎌낼 자신이 없어서 교회 나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나 5년 전 남편이 환전 북경사무소에 근무하게 되어 북경화인교회에 자진 등록하고 거기서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었는데 요즘은 제가 나태해지고 처음 믿게 된 남편이 더욱 열심이세요.

\*정진섭 성도는 이곳 서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아내가 늦둥이 아들을 낳고 건강도 좋아지며 입당 첫날 등록하길래 두 달 동안 생각 끝에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등록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전공이 다양하시더군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방송통신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동시 통역할 수 준이며, 그 후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작은 달란트이지만 서울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하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중국선교에도 관심이 많아요.

\*믿으신 지 얼마 안 되는 데 마음의 평강을 성경 말씀에서 얻으신다면요?

-교회 나오기 전 성경을 수없이 읽어왔는데 새가족부에서 나누어주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비로소 성경의 배경을 깨달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교와 불교를 배경으로 자랐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별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직장 내 기독교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믿고 보니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다.

여러분 아직도 등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작은 달란트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동참해주세요.



## 그래프로 보는 목회자 세미나 (수강자 연령분포)

### 목회자세미나 이수자 및 수료자 연령분포

교과를 초월하여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지속적인 말씀 공부와 신학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도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현대 교회의 목회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주는 역동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세미나가 92년 개강 이래 올해로 19학기의 강의를 진행중이다.

이에 순례자에서는 목회자 세미나의 그간의 성과를 되새기는 시리즈를 마련하였다.

나이	인원	%
70세이상	71	2%
60~69	492	11%
50~59	1403	31%
40~49	1881	41%
30~39	597	13%
29세이하	28	1%
기타	99	2%
합계	4571	100%



엄격하기로 소문난 학사관리와 한 학기가 10주 동안 진행되는 수강자에게는 다소 부담되는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이수자와 수료자의 합계가 4,500여명에 이르고 이중 가장 왕성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40대와 50대의 비율이 70%를 넘고 30대가 13%를 차지하는 등 젊은 연령층의 참여도 상당히 높으며 60세 이상의 비율도 13%에 이르러 이젠 목회자 세미나가 당초 목표로 한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에 일조하고 있음은 물론 국내 목회자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시환(편집부)

## 5해를 2해로 풀어봐요

우리 그 동안의 5해(?)를 2해로 풀어봅시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을 청결케 유지하고 자 음식을 먹는 일은 8층 만나 홀로 하고 교육실에는 음식의 반입을 금해왔는데 청결케 하려는 본래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먹지 말라는 말만 남아들 아다지고 있단니(?) ...

- 책임 있는 이가 이르시되 먹어야 산다. 먹되 청소를 반드시 하라 하신다. 단 주일에 외부에서 음식을 구입하여 들어오는 일은 성수주일의 정신에 위배되니 토요일에 준비하여 맛있게 잡수시고 뒷정리도 깨끗히 할 수 있을지 ...

**둘째로** 교회학교 성경공부 시간(10시-10시30분)이 짧아서 학생교육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하는 데?

- 가족이 함께 왔다가 함께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 사정상 시간외 프로그램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셋째** 찬양예배 직전 찬송을 인도 하는 분들이고 믿음이 있다는 데?

-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성도들이 너무 흩어져 앉아 찬양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는다니 오늘 저녁부터는 가운데 줄부터 채워 앉으시기를..

## 캄치 세미나 특집 ㉠

###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 카메룬

아프리카 대륙 중부 기니만(灣)에 면한 나라. 정식 명칭은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서쪽은 나이지리아. 동쪽은 차드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쪽은 콩고·가봉·적도기니 3국과 각각 접하고 있다.

면적은 475,422km<sup>2</sup>이며 인구 약 1,350만명, 수도는 야운데(Yaounde)이다.

기후는 남부는 고온다습한 전형적인 적도기후이며 북부는 고온건조한 사막기후이다. 언어는 불어(67%), 영어(33%)이며 종교는 카톨릭 및 기독교(55%), 원시도착 신앙(25%), 회교(20%)가 차지한다.

1472년 포르투갈의 항해자 페르난도 포가 해안의 강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작은 섬 부근에서 핑강히 많은 새우의 일종(포르투갈어로 Camares)을 보았으며, 이때 그 강을 카마롱이스강(Rio das Camares)이라고 부른 것이 카메룬의 어원이다.

처음에는 독일의 식민지였으나 독일의 1차대전 패배로 1919년 7월, 90%는 프랑스에, 10%는 영국에 분할되었다.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진 카메룬은 58년 12월 말에 완전한 내정자치가 허락되어, 60년 1월 1일 카메룬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주민은 네 그룹의 인종으로 대별된다. 최대 인종은 반투계(系) 그룹으로 광족(族)·바츠사(바코코)족·마카족 등 많은 부족으로 나뉜다. 세미반투계 그룹은 바빌레족을 주로 하며, 바뎀족 등 몇 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부에는 햄계 그룹이 많으며 풀라니족을 최대로 하는데, 이 풀라니족도 많은 부족으로 나뉜다. 제4그룹으로는 소수의 피그미와 외국인이 있다. 일반적 성격으로 반투계는 농경민, 햄계는 목축민, 피그미는 채집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도가 33%, 이슬람교도(주로 햄계 그룹)가 16%, 나머지는 전통적 부족종교를 믿는다.

일찍이 독일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1919년 이후 프랑스문화와 영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데다 인종적·부족적으로도 복잡하여 국내 통일이 아주 곤란한 형편이다.

교육의 보급은 아프리카에서는 높은 편이며, 초등교육 6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교육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심는 것,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유테서 (편집부)

## 동정

- 한선규 집사 권태희 성도 (7교구) 특남
- 박두영 집사 진행자 권사 대치1동으로 이사
- 박충구 집사 문승순 집사 과천으로 이사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전기집 장로 원영애 집사 (은혜중에 결혼식을 마치고)
- ☞ **목회자 세미나 식사 제공 가정** : 김제근 집사 안분선 권사 조정식 집사 김영식 집사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 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9차 캄치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